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29일 화요일 음 11월 15일 (7월)

기상정보

대체로 흐림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9~10°C, 낮 최고기온은 13~16°C로 전망된다.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gwipo.

Table with sunrise/sunset times and moon phases for Jeju.

Table with 7-day weather outlook for Jeju.

Table with health and safety weather information.

월드뉴스

스위스 스키장서 격리 영국인 수백명 도주

변이 확산 기폭제 될까 우려

스위스 유명 스키장에서 코로나19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 지시를 받은 영국인 관광객 수백 명이 '도주'해 현지 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영국인들이 즐겨 찾는 스위스의 스키 휴양지.

2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독일 도이체벨레(dw)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 베르비에의 스키 리조트에서 격리 중이던 영국인 관광객 200여 명이 몰래 숙소를 빠져나갔다.

영국 관광객들의 도주 사실은 이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식사에 손을 대지 않은 점을 숙소 측이 확인한 후 드러났다.

당국은 격리 대상자 420명 중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 이 중 일부는 프랑스에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처음 나타난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위스 정부는 21일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 이후 영국에서 온 모든 입국자들에게 열을 간 자가 격리할 것을 명령했다.

스위스에서도 영국발 변이 감염 사례가 2건 나온 상황이다.

현지 당국은 "격리 대상자 대다수가 하루 정도는 지침을 지키다가 몰래 도망갔다"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스위스와 한국을 포함해 40여 개국이 변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영국발 입국을 제한했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한라칼럼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



이윤형 선임기자

이토록 적막한 연말이 있었나 싶다. 시골벽적해야 할 거리는 텅 비었고, 송년회도, 모임도 할 수 없다. 소소한 여행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

한 것처럼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내일이 두렵다'. 그럼에도 이 엄중 잔뜩 움츠러들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은 거침이 없다. 전세계적으로 매일 5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1억 명 돌파가 머지않았다. 하루 8500명대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누적 사망자도 170만 명에 이른다.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언제 나와 가족과 이웃을 급습할지 모른다. 오늘이 무사히 지나갈지라도 내일이 두렵다. 가수 나훈아가 '데스형'에서 노래

한 것처럼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내일이 두렵다'. 그럼에도 이 엄중 잔뜩 움츠러들었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은 거침이 없다.

새로운 십 년대(decades)의 첫해는 이렇게 암울하게 저물어간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로.

이달 5일 미국 타임지는 새로운 표지를 공개했다. '역대 최악의 해'라는 문구와 함께 2020이라는 숫자에 붉은 색으로 X 표시가 된 표지다.

새해는 코로나가 바뀌놓은 일상과 새로운 흐름에 대처하는 일이 급선무

다. 무엇보다 코로나19는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전염병에 취약한 사회체계의 판을 보다 정교히 가다듬고 새로운 흐름에도 대비해야 한다.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차야 할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 불확실성이 높다.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텨내야 하는 사람들에겐 두렵기까지 하다.

열린마당

2020년 제주, 그리고 MICE 산업



한덕한 제주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팀장

1991년 제주, 한반도 해빙의 물꼬를 튼 한·소정상회담이 열렸다. 셋노란 유채꽃 배경의 한·미 정상회담은 5년 후인 1996년에 개최됐다.

2020년 제주, 한반도 해빙의 물꼬를 튼 한·소정상회담이 열렸다. 셋노란 유채꽃 배경의 한·미 정상회담은 5년 후인 1996년에 개최됐다.

이러한 시장 여건을 고려한 제주도의 내년 정책방향은 마이스 관련 고객 의 빅데이터 분석을 기초로 업계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2020년 제주, 한반도 해빙의 물꼬를 튼 한·소정상회담이 열렸다. 셋노란 유채꽃 배경의 한·미 정상회담은 5년 후인 1996년에 개최됐다.

그 와중에 제주가 세계적인 여행업계 권위자인 '비즈니스 데스티네이션

농업·농촌은 모든 국민의 공유가치



이성돈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

농업·농촌의 미래를 염려하는 이들이 많다. 전국적으로 농촌의 주거환경과 농촌다움을 훼손하는 시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가을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농업·농촌의 가치를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다면 농업·농촌의 미래는 밝다고 얘기하고 싶다. 그 배경에는 도시 과밀과 성장 한계 등의 반작용에서 비롯된 환경이나 경관, 식품 안전성, 여가 등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

농업·농촌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 전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가 돼야 한다. 지난 2018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포함하는 개헌이 이뤄져 소비자가 권리 조항도 신설된 바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Jeju Hallyeong, featuring domestic products and agricultural insurance.

Advertisement for Hanlim Jeongmyo, listing various agricultural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amgul Jeongmyo, featuring agricultural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Gamgul Jeongmyo, featuring agricultural products and contact information.